

20년 만에 완간된 성균관대학교출판부의 <사서삼경 강설> 대내외적인 소통의 길을 여는 고전의 재해석



▲ 힘들었기에 더욱 보람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하는 <사서삼경 강설> 팀. 좌부터 편집자 현상철 씨, 편집장 신철호 씨, 디자이너 최세진 씨

한 학자에 의해 20년 만에 <사서삼경(四書三經) 강설>이 완간되었다. 1987년 출간된 <대학강설>을 시작으로 최근에 출간된 <서경강설>에 이르러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사서삼경은 고전 중의 고전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 의해 읽히고 연구되어 왔지만 여러 나라를 통틀어 한 사람에 의해 사서삼경의 강설이 완성된 적은 아직 없었다. 이 6권의 책은(《대학》과《중용》은 한권으로 묶여있다) 모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되었는데, 권 당 평균 6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고 한자가 주가 되는 텍스트인지라 편집자에게도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고전 편집에 익숙하다는 점과 영리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지역 수준의 지엽적인 고전 해석을 뛰어넘는다

물론 20년 동안 편집자까지 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 <사서삼경 강설>을 담당하는 이들은 강설 시리즈의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 <서경강설>의 편집 멤버들이다. 그러나 강설에 대한 애정만큼은 누구 못지않다. 신철호 편집장은 “대학 출판부만이 ‘발굴’ 할 수 있는 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한다.

“그간 사서삼경에 대한 책들은 지역 수준의 지엽적인 책들이 많았습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서 끝나는 책들이라고 할까요. <사서삼경 강설>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는 책입니다. ‘동이(東夷)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동북공정을 비롯한 민족의 문제까지 살피고 있으니까요.’

신 편집장의 말대로 역해자인 이기동 성균관대 교수는 <사서삼경 강설>을 통해 공자의 사상은 동이의 사상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유학=중국사상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전복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이에 대해 편집자 현상철 씨는 고전의 재해석은 대내외적인 소통의 길을 여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한다.

“고전은 끊임없이 재해석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설의 경우 책의 특성상 필자 의존도가 높고, 역해자의 관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책입니다. 앞으로 홍보가 더욱 이루어지면 이런 ‘해석’에 대해 발전적인 ‘동의’나 ‘이의제기’ 같은 것이 출판사를 통해서든, 이 교수님을 통해서든 이루어져 대내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완성된 책들이기에 사서의 디자인과 삼경의 디자인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사서가 완간되면서 3권

의 편집체계를 통일했고, 삼경의 작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편집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신 편집장은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역해한 이 교수님도, 저희 편집부도 이렇게 오래 걸리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작업이 끝났다면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편집 체계에 더욱 통일성을 기할 수 있었겠죠. 만약 편집도 한 사람이 맡아서 했다면 좀 더 일관성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자가 많은 책인지라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었다. 확장자의 경우 일일이 그림판에 저장된 것을 따서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한자 편집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전 작업에 익숙한 디자이너를 찾는 것은 기본이었다. 디자이너 최세진 씨는 “여러 측면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책이 나오게 되면 수정,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최선을 다한 편집자에게도 ‘아쉬움’은 남는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 대학 출판부에서 책을 출간하는 것은 책의 질을 담보하는 보증 수표와 같다.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들 중에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책들이 상당하다는 것만 봐도 대학출판부에 대한 독자들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 출판부가 교수 개인의 ‘성과물’을 출판하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학 출판부가 아니면 출간할 수 없었던 책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가 출간한 <사서삼경 강설>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학술적인 측면으로 다양한 깊이를 추구하면서도 대학 출판부가 아니면 출간할 수 없는 책이라는 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학·중용강설>이나 <시경강설> 등은 ‘문화부 추천 우수 고전’이나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 편집장은 이번 강설 시리즈의 완간을 계기로 보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대학출판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업 출판사 같은 경우야 기획 단계부터 판매가 예상되는 책들만 출간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적극적이지만 대학 출판부는 그런 면에서 미약하다는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기에 <사서삼경 강설> 완간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얻어 타 대학 출판부에도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이기동 교수 사서삼경,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구세철학 될 것



<사서삼경 강설>을 20년 만에 완간한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부 이기동 교수. 그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들을 읽는 것을 경계했다. 사서삼경의 진정한 가치는 경쟁에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말하는 이 교수는 20년 간 고전과 함께 한 이답게 고전의 정신을 체화한 눈빛과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Q. <사서삼경 강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A.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서점을 둘러보다가 한국에서 출판된 사서삼경 관련 책들이 일본이나 중국의 책을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민족에게 유학의 중심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책으로 정리된 것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단순한 번역서가 아닌 한국인의 시각으로 해석한, 외국에도 소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책을 집필하고자 했다.

Q. 20년 동안 집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고비가 많이 있었을 것 같다.

A. 처음 집필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서삼경은 책과 완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강설이 불가능한 책이다. 그런 하나 되는 과정에서 고비들이 있었다. 예컨대 <주역강설>은 책 자체가 너무 어려워 처음에는 암호를 해독하는 막막한 기분이었다. 비밀을 꼭 풀겠다는 의지로 몇 년에 걸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주역을 읽는 방식’을 찾아냈다. 또한 <시경강설>의 경우에는 시(詩)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 놓은 우리말로 원문 못지않은 시가 되어야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의 마음이 아니면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詩)연습에 들어갔고, 그렇게 쓴 시로 시집을 내기도 했다. 그런 후에야 <시경강설>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들이 모두 몇 년씩 걸렸기에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 같다.

Q. <사서삼경 강설>이 오늘의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A. 사서삼경에는 인간의 본질이 들어있다.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깊이와 체계가 있다는 점에서 구세철학이라고 부를 만하다. 한국은 지금 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것을 방치하고, 외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것을 아는 지름길이 바로 사서삼경이다. 중국의 고전이 왜 우리의 것이냐고 반문하는데, 그 알맹이는 동이족의 사상이다. 우리의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